세대교체 성공 배드민턴, 역대 최고 성적 '자신감'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 종목

배드민턴

단·복식 등 5개 금메달 놓고 경쟁
안세영, 28년 만의 우승 사냥 등
'항저우 멤버' 역대 최다 금3 도전

지난해 세대교체에 성공한 한국 배드민턴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정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여자단식·여자단체), 은메달 2개(남자복식·여자복식), 동메달 3개(여자복식·혼합복식·남자단체)를 수확했다.

윗세대가 대거 은퇴했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경험한 '노메달' 수모를 시원하게 설욕한 순간이었다.

특히 여자 배드민턴은 29년 만에 중국을 꺾고 역대 두 번째 단체전 우승을 일궈냈고, 안세영은 여자단식 개인전에서도 방수현 이후 29년 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로부터 9개월여 흐른 시점, 한국 배드민턴은 불씨를 이어가 올림픽 무대에서 활활 피워올리려 한다.

종목 특성상 아시아 국가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고 해서 난도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배드민턴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회다.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에서도 한동안 기를 펴지 못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2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는 남자복식 박주봉-김문수와 여자복식 황혜영-정소영이 우승했고, 1996 애틀랜타 대회에선 혼합복식 김동문-길영아, 여자단식 방수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0 시드니 대회에선 금메달이 없었지만 2004 아테네 대회에서는 남자복식 김동문-하태권, 2008 베이징 대회에선 혼합복식 이용대-이효정이 금맥을 이었다.

그러나 2012 런던 대회부터 2020 도쿄 대회까지는 3개 대회 연속 '노골드'로 동메달 1개씩에 그쳤다.

올림픽에는 아시안게임과 달리 단체전 종목이 없어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에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파리 출정에 나서는 이번 대표팀의 목표는 역대 최다인 금메달 3개다.

9개월 전 메달 맛을 봤던 '항저우 멤버'가 그대로 출동한다. 출전권 2장을 확보하지 못한 남자 단식·복식에서 정원이 하나씩 줄었을 뿐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에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는 안세영(22·삼성생명)은 28년 만의 여자 단식 금메달에 나선다.

여자 복식에서는 세계 2위 백하나(23·MG새마을금고)-이소희(30·인천국제공항)와 7위 김소영(31·인천국제공항)-공희용(27·전북은행)이 태극전사 결승 맞대결을 꿈꾼다.

두 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소영-공희용은 도쿄 올림픽에서 대표팀 동료 이소희-신승찬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지난 25일 충북 진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미디어데이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선수권 2관왕에 오른 서승재(26·삼성생명)는 남자복식에서 강민혁(25·삼성생명)과, 혼합복식에서는 채유정(29·인천국제공항)과 호흡을 맞춰 2개 종목 제패에 도전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혼합복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혼합복식 김원호(25·삼성생명)-정나은(24·화순군청), 남자단식 전혁진(29·요넥스), 여자 단식 김가은(26·삼성생명)도 반전의 스매시를 노린다.

재작년 11월 지휘봉을 잡은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 배드민턴의 황금기를 확실히 선포하겠다는 각오다.

김 감독은 지난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아시안게임 때보다 선수들과 지도자들 간 신뢰가 더 쌓였고 목표 의식도 더 투철하다"면서 "전체 선수들이 금메달 후보다.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 이상하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2개 넘게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을 도전한다"며 "어느 선수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영광은 우리 선수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격형 변신 안세영, 더 무서워졌다

나주 출신…배드민턴 여자단식 금 도전

체력 부담 줄어 경기 진행 유리
싱가포르 우승으로 조 편성 무난
화순군청 정나은, 혼합복식 출전

나주 출신 안세영(22·삼성생명)이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파리올림픽 정상을 노린다.

남다른 천재성과 어마어마한 근성을 갖고 있는 안세영은 지난해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르며 한국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당시 안세영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단체전에 이어 중국 천위페이를 상대로 한 단식 결승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

천위페이는 2021년 도쿄 올림픽 당시 8강에서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겨준 선수로 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진 승부에서는 부상 투혼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도쿄올림픽 당시 배드민턴 종목 최연소인 19세였던 안세영은 2024년에는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올림픽 코트에 오른다.

나주시 이창동 출신인 안세영은 풍암초, 광주체중,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이었던 안세영. 그의 배드민턴 인생은 아버지(안정현 전 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를 따라간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서 시작됐다.

아버지 안정현 전 사무국장은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는 안세영을 보고 나주 중앙초 1년 때 풍암초로 전학을 보냈고, 이후 안세영은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스승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게 됐다.

안 전 사무국장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함께 배드민턴장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 세영이가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영이는 누구보다도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또 열정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 온 것을 알고 있으니, 그동안 해온 것을 올림픽에서 다 보여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딸을 향한 응원을 전했다.

탄탄한 수비가 가장 큰 장점인 안세영은 지난해부터 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체력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부상 악재를 이겨내고 컨디션을 끌어올린 안세영은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2024 배드민턴 싱가포르오픈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보였다.

싱가포르 대회 우승으로 올림픽 시드(우선권)를 확보한 안세영은 경기 후 장내 인터뷰에서 "부상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노력한 만큼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12일 올림픽 '선발대'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안세영은 현지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통해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위한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화순군청 정나은(24)도 파리올림픽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다.

정나은은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 김원호(25·삼성생명)와 함께 출전한다.

정나은은 2022 일본오픈에서 김혜정(27·삼성생명)과 함께 여자 복식 우승, 지난해 열린 2023 태국오픈에서 김원호와 혼합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또 지난 1월 열린 2024 말레이시아오픈과 3월 열린 2024 독일오픈에서 김원호와 준우승을 거둔 바 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가운데〉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경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 하루 뒤인 오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펠 경기장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홍콩 10억원…영국·노르웨이 '0원' 사우디 '은메달 18억' 금메달 따면?

각국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천차만별'

한국, 6300만원…동 2500만원
세계육상연맹, 올해부터 포상금

지난 10일 홍콩 올림픽위원회는 이달 말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600만 홍콩달러(약 10억원)를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근 미국 시사 매거진 타임지가 최근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올림픽 메달 포상금에 대해 보도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최근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또는 개최하며 막대한 돈을 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21년 도쿄 올림픽 당시 도쿄올림픽 가라테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타레그 하메디에게 500만리얄(약 1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직 올림픽 금메달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메달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만일 금메달이 나온다면 도쿄 대회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도 홍콩과 비슷한 규모의 메달 포상금을 책정했다. 싱가포르는 개인전 금메달에 100만 싱가포르달러, 한국 돈으로 역시 10억원 정도를 줄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올림픽 금메달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수영에서 유일하게 나왔다.

대만도 금메달을 따면 2000만 대만달러(8억 4000만원)를 주고 평생 월 50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000만원 정도인 10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이들 외에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탈리아, 필리핀, 헝가리, 코소보, 에스토니아, 이집트 등이 있다.

인도는 금메달리스트에게 정부에서 750만루피, 인도올림픽위원회에서 1000만루피를 별도로 지급해 총 2억8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말레이시아는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약 3억원 외에 외제 차를 별도로 시상하고, 카자흐스탄은 아파트 한 채를 준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당시 정부 포상금 6억원 이상과 후원 기업 등으로부터 집, 소, 식당 등을 받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는 2021년 도쿄 올림픽 당시 금메달리스트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기념주화를 선물로 받았는데 25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라크는 올림픽 본선에 나간 축구 대표팀과 역도 선수 알리 아마르 야세르에게 1000만원 정도씩 전달하며 격려했다.

반면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메달리스트에게 별도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올림픽위원회에서 금메달 포상금 3만 7500 달러, 5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에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개최국 프랑스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금메달 8만 유로(1억2000만원)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세계육상연맹은 올해 파리 대회 금메달리스트에게 상금 5만 달러를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해당 경기 단체가 별도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IOC위원 도전 박인비 "둘째 임신했어요"

이달 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에 도전하는 박인비(36·사진)가 올해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박인비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오늘 생일을 맞아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다"며 "저희가 세 식구에서 올해 네 식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인비는 지난해 4월 첫딸을 낳았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다.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 위원 후보로 나서는 박인비는 둘째와 함께 선거전을 벌이게 된 셈이다.

그는 9일 열린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대한 많이 (선수들을) 만나고, 얼굴을 알리겠다"고 선거전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박인비는 "많은 분의 축복 속에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차근히 해 나가고 있다"며 "저희 가족 모두 새로운 축복을 맞을 생각에 많이 설렌다. 많은 응원과 축복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9일 결단식에서 다시 골프 선수로 뛸 계획을 묻는 말에 "올해는 일단 출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올해 둘째를 낳고 IOC 선수 위원 선거 결과 등에 따라 2025시즌에도 필드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